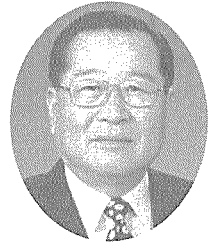


제6차 ICI 한국유치 확정과 그 의미



채 화 목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

1. 서론

2005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동위원소대회(ICI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에 우리한국대표단은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인 본인을 수석대표로 총 30명이 참가한 뒤, 차기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ICI)의 한국개최를 확정지었다.

따라서 본지를 통해 그동안 제6차 ICI 국내 유치 활동들을 소개하고, 대회 유치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2. ICI 소개

ICI는 중국의 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원자력학회가 주축이 되어 자국의 방사성동위원소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995년 창설되어 제1회 대회를 199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금년까지 5차례의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전 대륙의 선진국은 물론 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동위원소 관련 산업계, 연구소, 대학 등 전문가들의 큰 관심과 지원 하에 동위원소 이용 등에 관한 다양한 기술개

발 및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직접 접촉을 통하여 참가국간의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ICI는 제1차 베이징(China, 1995), 제2차 시드니(Australia, 1997), 제3차 밴쿠버(Canada, 1999), 제4차 케이프타운(South Africa, 2002), 제5차 브뤼셀(Belgium, 2005)까지 5회가 개최되었다.

ICI대회는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시작한 이래,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동위원소사회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과학프로그램(Scientific Program)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잡고 있다. ICI는 두 가지의 기본정신인 “광범위한 과학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의 국제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ICI 매 대회는 이러한 ICI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과학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3. ICI 국내개최를 위한 유치 활동

ICI는 개최 희망국가나 주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는 물론 정부 및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ICI관련위원회의의 객관적인 평가에 반영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2007년 제6차대회 유치 목표를 그 기반 조성에 힘써 왔으며 정부관련 부처인 과학기술부차관 및 고위 레벨에서 2회에 걸친 동 대회 참가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제6차 ICI 한국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이명철 당협회 부회장) 및 실무위원장(허남 당협회 국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위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본다.

그 동안 4차례의 ICI대회 개최 자료를 입수·분석하여 제5차 ICI 조직위원회(위원장 Mr. Carlo Chemaly)와 실무위원들에 대해 꾸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당협회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ICI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Steering Committee(IMSC)와 Scientific Committee(SC)의 위원이기 때문에 한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4. 제6차 ICI 한국유치 결정

제5차 ICI에 대하여 우리나라 참가단은 차기대회의 후보국으로서 자격과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측 대표로서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과 6ICI 유치위원장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총 30명(유치대표단 11명, 일반참가자 19명)이 참가하여, 논문 19편과 포스터 4편을 발표하였으며, 유치 주요활동으로 6ICI 유치제안 발표 및 한국홍보 동영상소개와 한국홍보책자, KRIA홍보자료 및 6ICI유치 홍보브로셔 등을 배포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5ICI 개막식에서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차기대회 개최국으로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대회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국 한국의 6ICI 유치위원장인 본인의 수락연설과 함께 참가자들은 다음 대회를 한국에서 기약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지원으로 제5차 평가위원단은 우리나라를 제6차 ICI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5. ICI 한국유치가 갖는 의미

정부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에 따라 RI/RT의 이용량 증가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그 응용분야가 확대·발전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량은 크게 증가추세이며, 하나로와 주변 RI생산시설 및 원자력의학원의 RI생산 전용 싸이클로트론과 부대시설은 아시아지역에서 RI 생산공급의 주요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RI/RT 이용진흥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이용량 증가와 관련 기술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술은 그 분야가 다양하고 특수하며, 방사선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2007년 제6차 ICI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국제교류협력에 부응하여 아시아의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세계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제6차 ICI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협회관계자와 구성된 조직위원회의 유연한 상호 연계로 차기 ICI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